

「營戰略으로서의 特許管理」

오 이

特許管理는

當社は 오이레스베어링의 研究・製造, 그리고 販賣를 目的으로 1952年 3月 11日에 設立된 會社이다. 오이레스(OILLES)란 「기름이 必要없다」 「無給油」를 意味하는 英語의 「OILLESS」에서 由來한 造語로 當社製品の 登錄 商標이며 또한 社名이기도 하다.

當社の 特許業務를 管理하고 技術管理부는 會社の 組織으로서 研究技術 部門과 같이 技術開發本部에 속하고 特許情報의 傳達등 活動하기 쉬운 條件이 되고 있다. 當社の 特許管理는 技術管理부를 中心으로 한 集中管理 方式를 採用하고 있으며, 特許情報活動도 情報의 蒐集・加工・配布・保管 等の 活動을 擔當하고 있다. 現在 特許擔當은 特許擔當部長을 包含하여 男子 4名 女子 1名으로 構成되어 있다.

特許部門의 役割

特許部門의 役割은 研究・開發 外 技術活動의 成果를 權利化하여 技術競爭力을 増大・強化하고 그 技術分野에 있어서 優位性을 確保하는 일, 侵害事件의 發生을 未然에 防止하고 또한 特許功勢에 效果의 對處하는 일, 그리고 社內에 있어서 特許意識의 育成高揚하여 研究・開發・技術活動이 效率의 由로 強力하게 進行될 수 있도록 하는 支援등이다.

特許擔當은 恒常 主要研究 題마의 進行, 開發프로젝트의 動態에 留意하고, 또한 營業部門의 情報・意見에도 充分히 注意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正確한 特許情報를 提供하는 데에 必要하며, 研究・開發에의 힌트를 줌은 물론 侵害防止의 點에서도 重要하기 때문이다.

特許情報業務

研究開發을 하는데 있어 特許情報는 至極히 重要하며, 特許部門과 研究・技術部門이 緊密히 連帶해서

特許情報를 適時에 正確하게 使用하는 것이 또한 重要하다. 이와같은 觀點에서 每日每日 活動하고 있는 當社の 特許情報業務에 대해 說明한다.

特許情報의 種類

現在 特許에 關係된 情報로서 繼續의 由로 蒐集하고 있는 公報類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日本—特許・實用新案의 公開・公告公報, 類別商標公報.
- 外國—美國오피셜・가제트, 그의 主要國(西獨・프랑스・英國等)의 베어링關係公報

特許情報의 흐름

特許情報의 흐름에 대해서는 尙 利用度가 높은 日本의 公開・公告特許 및 實用新案公報를 이용하고 있다.

當社에서는 若干의 時間損失이 있지만 經濟性을 考慮해서 特定의 産業部門別의 公報目次를 購入하며, 目次에서 얻을 수 있는 公報를 「選擇」해 發注・購入하는 方法을 採擇하고 있다. 發注에 즈음해서 公告

特許・實用新案 및 公開實用新案은 公報를, 公開特許는 抄錄을 發注・購入하고 있다.

그리고 公開實用新案 및 公開特許抄錄에 대해서는 技術內容을 체크하여, 詳細한 技術內容을 必要로 한다고 判斷된 것은 實用全文明細書나 公開特許公報를 購入하고 있다.

公報目次에서 必要한 公報를 選擇하는 作業은 分類・發明(考案)의 名稱・出願人의 項目에서 選擇의 可否를 決定해야 하며 또한 漏落은 研究・技術部門에의 正確한 情報의 傳達에 支障을 가져오게 되므로 選擇에 있어서는 注意力・集中力・判斷力이 必要하다. 特히 公告公報는 權利情報이며 漏落은 直接 企業活動에 影響을 끼치게 되므로 特히 注意力・集中力・判斷力이 必要하다. 抽出된 公報는 公開・公告番號 順으로 公報臺帳에 分類, 記入된 後 技術內容을 체크한다.

技術內容을 체크한 後 必要한 部門 및 研究・技術者에게 다이렉트로 「配布」・「回覽」하고 있다.

公開公報類에 대해서는 必要한 部門에의 提供를 다이렉트로 하고 있다. 그것은 公開公報의 量이 公告公報보다도 數倍나 많은 點, 公開公報에는 까다로움이 많이 있는 點등 日常의 研究・開發業務에 쫓겨 特許情報를 보는 時間的인 餘裕가 없는 研究者・技術者에 正確한

레스工業(株)

技術管理部 중심

정보를 주려고 하는 이유 때문이다.

公告公報에 대해서 異議申請의 必要가 있을 법한 것에 대해서 回覽時에 「異議要檢」라고 添付, 關連된 研究·技術部門에의 異議申請의 回覽時에는 分類別로 保管하고 있다.

特許調査

特許情報活動중에 가장 重要하고 特許擔當에 있어 그 業務의 專門性과 高度性を 發揮할 수 있는 것이 特許調査이다.

特許調査는 單發的으로 特定한 目的을 위해 하는 것과 어떤 研究·技術테마에 대해 繼續的으로 하는 것이 있다.

調査目的을 크게 나누면

- ① 新規로 着手한 研究·開發의 調査
- ② 商品化 計劃段階에 있어서 調査
- ③ 受注製品의 設計時에 있어서 調査
- ④ 出願을 위한 先行技術의 調査
- ⑤ 異議事件에 있어서 證據資料의 調査
- ⑥ 侵害事件에 있어서 證據資料의 調査등이 있다.

特許정보를 單純한 技術정보로 活用하는 境遇는 別途로 權利情報(公告公報)인 以上, 權利範圍의 解析을 하고 있다.

技術範圍(權利範圍)의 實體는 무엇인가, 實質的으로 어떠한 것인가 하는 「確認」과 그것이 公開公報의 境遇에서는 그 技術範圍는 어느 程度의 幅으로 權利化되었나 하는 「推測」의 業務가 至極히 重要하게 된다. 이 業務는 先行한 技術 또는 周邊技術을 徹底하게 調査해서 정보를 얻지 않으면 正確한 判斷을 할 수가 없다.

調査에는 相當한 專門性과 細心함과 忍耐力등이 必要하고 境遇에 따라서는 洞察力이 必要로 하게 된다.

上記의 調査目的中에서도 特許 ②, ③ 및 ⑥의 調査는 當社製品이 他社의 權利를 侵害하는가의 與否를 調査하는 것이고, 메이커로서 直接 使用에 迷惑을 갖는 것, 또한 會社의 信用에도 關係된 重要視하고 있다. 當社에서는 研究·開發 또는 設計에 着手하는 時點에 있어서는 當然하지만, 最終段階에 있어 製品化나 設計完了의 時點에서 他社權利와의 關聯의 確認을 위한 調査를 하는 시스템을 採擇하고 있어 特許部門은 보다 具體化한 製品·設計에 關聯된 關連特許로 調査抽出하여 그 特許를 侵害하는가를 判斷해서 研究·技術部門으로의 製品化·設計에 대한 指針·方策을 賦與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⑤의 異議事件에 대해서는 當社의 重要한 出願에 異議申請을

받는다는지, 今後 紛爭으로 發展하는 要素가 있는 事例을 除去하는, 特許擔當의 實力을 向上시킬 수 있는 좋은 “教材”로 생각할 수 있다. 異議申請에 의해서 他社의 發明考案의 不明確한 點의 解明을 찾아보고 權利縮小·權利化阻止를 가능케 하는 行爲와 過程에는 特許實務上 必要한 事項이 거의 網羅되어 있고 더구나 “解説”, “解答”이 붙어 있다. 當社에서는 特許業務에 익숙하지 못한 때에 이 “教材”로 學習하게 되어 있고 여기서 얻은 知識·實務經驗은 극히 重要하며 어느 때에 반드시 實力이 되어 發揮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들 調査는 主로 特許部門에서 하고 있고 調査內容에 의하여 社內에 蓄積된 特許情報로 處理할 수 있는 것은 社內의 特許정보를 利用하고 時間的 餘裕가 없는 境遇 또는 社內의 特許情報의 蓄積이 不充分한 分野에 대해서는, 特許廳資料館에 가서 調査하든가 혹은 外部의 調査機關에 依頼하고 있다.

檢索시스템

베어링關係技術에 대해 社內의 研究·技術者가 必要한 特許정보의 檢索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目的으로 特許情報檢索시스템을 確立했다.

當社에 있어 이제까지 행해진 特許調査內容을 檢討한 結果, 技術內容에서는 成分·組成·材料의 合成 및 形狀·構造·製造方法이고 一般面에서는 公告番號·出願人別의 調査가 많아 對象을 「베어링」에 관한 公告公報에 넣어 이것을 「材料」, 「形態·構成」, 「機能」, 「製造方法」 「用途」의 가까운 角度에서도 檢索할 수 있도록 한 檢索시스템이다. <8>